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출장개요

1. 배경 및 목적

- ‘수상레저의 메카’인 가평군 북한강(청평호)은 체계적이 마스터플랜 없이 영세한 수상레저 사업자들에 의한 자체적인 개발과 영업으로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해결방안으로 특성화된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강 천년벚길’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세계 여러 주요도시들은 친환경적인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도시 공간 내에 조명하여 도시 활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 이미지와 북한강의 잠재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북한강 수상관광 시대를 발굴코자 함.

2. 주요일정

- 일 정: 2023. 4. 9.(일) ~ 4. 15.(토) / 5박7일

날 짜	방문지	주 요 방 문 지
2023.04.10.	비엔나	비엔나 문화탐방 셴부른 궁전, 다뉴브강 수변관광 등 탐방
2023.04.11.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국도해운과 방문 다뉴브강 유람선 탐방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를 운영하는 Európa Rendezvény Iroda Kft. Panoráma-Deck Kft. 관계자 미팅
2023.04.12.	베르가모	밀라노 문화탐방 ※베키아 광장, 라조네 궁전,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
2023.04.13.	밀라노	밀라노 문화탐방 ※고딕양식의 듀오모 성당, 스포르체스코성 방문
2023.04.14.	말라노 (꼬모)	꼬모호수 수상관리청 방문 ※꼬모호수의 운항선을 관리하는 Gestione Navigazione Laghi를 방문하여 여러 형태의 운항선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청취

3. 방문 국가 및 도시

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중부유럽에 있는 국가이자 서유럽에도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다.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이웃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83,879km²로, 국토가 알프스 산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숲의 국가이며 수도는 비엔나이다.

- 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c of Austria/Republik Österreich)
- 수도 : Wien(영어 : Vienna)
- 인구 : 895만 8,960명 세계99위 (2023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 언어 : 독일어
- 면적 : 83,871,99 km² (한반도의 약 2/5)
- 기후 : 온대기후(4계절 뚜렷, 동부는 대륙성 기후, 서부는 대서양 기후)
- 연평균 기온 : 7~9° C
- 종교 : 가톨릭 64%, 개신교 5%, 이슬람교 8%

■ 문화예술의 중심지 비엔나(Wien / Vienna)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대표 도시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군영지가 축소된 이래 20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켈트 족이 정착하며 형성되었으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집권하면서 중부 유럽의 정치, 문화, 예술,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하이든 등의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과 빈 소년 합창단으로 유명하다.



나. 헝가리

중부 유럽의 내륙 국가. 수도는 부다페스트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마자르족이다. 화폐는 헝가리 포린트이다.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1

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서유럽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지만 동유럽의 국가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앞선 편에 속한다. 16세까지의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학 수준이 높다.

- 국명 : 헝가리(Hungary)
- 수도 : Budapest 부다페스트
- 인구 : 1,015만 6,239명 세계93위 (2023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 언어 : 마자르어 (헝가리어)
- 면적 : 93,030km²(한반도의 2/5, 한국의 0.94배)
- 연평균 기온 : 10.8℃, 여름 평균 22℃, 겨울평균 -1℃입니다.
- 종교 : 카톨릭 74.4%, 개신교 20%,유대교 등

■ 다뉴브 강의 아름다운 회색 도시, 부다페스트

개혁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나라 헝가리는 공산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 동구권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바로 그 현장을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보행자 도로인 바찌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는 우아한 상점들은 동구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갖가지 상품들이 풍부하게 진열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곳의 저렴한 물가는 여행자들을 즐겁게 한다.



다.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이며 공식어는 이탈리아어다. 국민은 이탈리아계이며 주로 로마 카톨릭교를 믿는다. 화폐 단위는 유로이며, 양원제를 가진 공화국이다.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과 이웃하고 있는 지중해의 장화 모양의 반도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 예술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현재는 크게 발달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 국명 :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The Italian Republic)
- 수도 : 로마(인구 약 287만 명)

- 인구 : 5,887만 762명 세계25위 (2023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 언어 : 이탈리아어
- 면적 : 302,072km²(한반도의 1.36배)
- 기후&기온 : 4계절이 뚜렷하며 기온은 여름철 평균 29℃, 겨울철 평균 9℃
- 종교 : 가톨릭 85.7%, 정교회 2.2%, 이슬람 2%

■ 베르가모 (BERGAMO)

밀라노의 북서쪽에 위치한 베르가모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언덕 위에 위치한 치타 알타(Citta alta, 높은 시가)이고 다른 하나는 치타 바싸(Citta Bassa, 낮은 시가)로 구분된다. 치타 알타는 베르가모의 옛 모습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으며 치타 바싸는 넓은 평원에 자리한 현대적인 거리다. 두 마을은 푸니콜라레(Funicolare)라는 케이블카로 이어지는데 주요 볼거리들은 대개 치타 알타에 집중되어 있다.



■ 밀라노(Milano)

이탈리아 북부 도시로 롬바르디아주의 주도 이다. 그랜드 밀라노로 알려진 밀라노 대도시권은 롬바르디 중부와 피에몬트 동부까지 뻗어 있고 총인구가 750만 명으로 추산돼 이탈리아에서 단연 가장 큰 대도시권이자 세계에서 54번째로 큰 도시 이다. 밀라노는 286년부터 402년까지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313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공식 선포된 곳이기도 하다. 밀라노는 예술, 상업, 디자인, 교육, 패션, 금융, 보건, 미디어, 연구와 여행 등에 강점을 가진 도시이다.

■ 꼬모 (COMO)

꼬모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꼬모도의 자치 단체의 하나로, 꼬모현의 행정 구역이다. 기후가 온화하여 인기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꼬모 호는 가르다 호와 마조레 호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세번째로 큰 호수로 유럽에서 가장 깊은 호수들 중 하나이다.



4. 출장자 인적사항

순번	소 속	직 책	성 명	영문명	비고
1	가평군	군수	서태원	SEO TEA WON	
2	가평군	관광과장	박재홍	PARK JAE HONG	
3	가평군	비서관	민웅기	MIN WOONG KI	
4	가평군	수상관광팀장	신동원	SHIN DONG WON	
5	가평군의회	군의원	김종성	KIM JONG SUNG	

II 출장내용

이번 공무국의 출장은 북한강 천년벚길 및 수상관광분야 선진지를 방문하여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수상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관리 운영 경험을 통해 사업추진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밀라노 일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본 귀국 보고서는 답사자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였으나,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1. 오스트리아 - 비엔나

가. 방문목적

비엔나의 관광명소와 다뉴브 강을 활용한 수변 공간 활용 방안 답사

나. 방문 일자: 2023. 4. 9(토). ~ 10.(일)

다. 방문 내용

비엔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살기 좋은 도시에 뽑혔다. 뛰어난 치안 수준뿐만 아니라, 온난한 기후에 울창한 가로수가 잘 가꾸어진 깨끗한 거리 환경을 자랑하며, 거리 곳곳에는 유럽 예술의 중심지답게 각종 문화 시설이 즐비하다.

비엔나의 관광명소는 오래전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전해진 중요한 역사적 유물과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호프부르크, 쇤브룬 궁전, 슈테판 대성당, 성 베드로 성당, 성 카를 성당, 등이 있다. 시내에 있는 빈 중앙 묘지(Zentralfriedhof)는 클래식 음악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곳이며, 빈에서 활동한 유명 음악가들의 무덤들이 밀집해 있다.

런던이나 파리 못지않게 유적과 문화 유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인 구시가지(Innere Stadt)는 전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탈리아처럼 절대로 외관을 바꾸는 건축 허가는 내지 않아서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 중이다.

루브르처럼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좋은 미술관이나 박물관들도 많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이 모여 있는 빈 미술사 박물관과 귀중한 화석, 광물 컬렉션과 박제들이 가득한 빈 자연사 박물관, 합스부르크 왕궁에 들어선 알베르티나 미술관, 황실 가구 박물관(Imperial Furniture Museum) 등 볼거리가 많다.

ab 60 Jahre), Studierende, mäßigung exkl. Hafentaxen sowie Saison.

Indertentpass) und sonstiger Zuschläge



TWIN CITY LINER.com
SO GEHT SCHIFF HEUTE

Wien - Bratislava



Red Ticket
€ 25,-

FAHRPLAN
2023



erben und gelten kostenlose Hafentaxen
finden Sie unter twincityliner.com.
?&Kofordernungsbedingungen: Abreife

Reifhafentaxen
Hafentaxenverordnungsblatt

▲ 비엔나 다뉴브강 선박이용 관련 자료

'다뉴브'는 영어 명칭이고, 독일어 명칭은 '도나우'다. 이 강을 끼고 있는 영어권 국가가 하나도 없기는 하나, 지나가는 국가들의 언어가 독일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 한 언어를 쓰지 않고 익숙한 영어 명칭이 널리 알려진 듯하다. 유럽의 강 가운데선 불가강에 이어 2번째로 길다. 강의 길이는 2858 km, 유역 넓이는 81만 6951 km²다.

도나우 지역과 그 일대의 다양한 경관은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전체 면적의 1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비엔나와 인접한 도나우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경제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뉴브강의 비엔나 구간은 하폭이 넓지 않아 대형 유람선의 운항은 어렵지만 효율적인 운영과 수변관리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를 만들게 되었다. 유람선 선상에서는 각종 공연을 동반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변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고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도나우인젤(Donauinsel)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섬이다. 다뉴브강에 중앙 비엔나에 위치한 섬, 자전거 타기, 수영, 스케이트, 카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엔나 주민에서 인기있는 휴가 장소입니다.



▲ 다뉴브강 선상의 선박을 이용한 식당(좌)와 하천변을 활용한 수변광장

비엔나의 주요 관광지 중 쇠브론 궁전과 슈테판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다. 쇠브론 성당은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을 가진 함스부르크 가문의 여름궁전이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 왕국의 베르사유 궁전에 비견되는 궁전을 가지고 싶다는 야

심으로 건축했다. 궁전의 방은 총 1400여 개가 있으나 공개되는 곳은 40개뿐이다. 궁전의 정원은 가로수들이 특이한데, 한 쪽면만 아주 반듯하게 펴놓은 듯 잘라 놓았다. 정원 뒤편으로는 해군을 둘 정도로 넓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과거를 회상시키는 포세이돈 분수와 그로리아떼, 한국어로 작은 영광을 뜻하는 건물이 있어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슈테판대성당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대양식 건물로서, 1147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설을 시작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며 파손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복구를 시작하여 대부분 옛 모습을 찾았다. 성당 이름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성인 슈테판에서 딴 것이다. 지하에는 1450년에 만든 지하유골 안치소 카타콤이 있는데, 페스트로 죽은 사람의 유골 약 2,000구와 합스부르크 왕가 황제들의 유해 가운데 심장 등의 내장을 담은 항아리 및 백골이 쌓여 있다. 모차르트의 결혼식(1782)과 장례식(1791)이 치러진 곳이며, 빈 시민들은 매년 12월 31일 슈테판대성당 광장에 모여 새해를 맞는다.



▲ 비엔나 시가지에 위치한 슈테판 대성당(좌)과 쇤브룬 궁전

2. 헝가리 - 부다페스트

가. 방문목적

다뉴브 유람선을 운영하는 선사를 방문 및 탑승체험과 관광명소 답사

나. 방문 일자: 2023. 4. 10(일). ~ 12.(수)

다. 방문 내용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로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유서 깊은 도시이다. 도나우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부더)'와 '페스트(페슈트)'라는 두 도시가 하나로 합쳐져서 현재의 이름이 된 것으로, 부더에는 왕궁과 관청가, 귀족 등 지배층이 살았고 페스트에는 서민들이 살았다. 페슈트는 '도자기 굽는 마을'이란 뜻으로 전통적으로 관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헝가리 GDP의 40% 정도가 서비스업이기에 헝가리 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거대한 도나우 강이 관통하는 이 도시는 앞서 말했듯이 서쪽의 '부다'와 동쪽의 '페스트'로 분리되어 각자 고유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성 이슈트반 대성당, 영웅 광장, 야경 등을 제외하고 타 유명 유럽 도시들에 비해 특출나게 뛰어난 볼거리는 없지만 그 외 치안 · 대중 교통의 편리성 · 공항과 번화가와의 거리 · 친절하고 양심적인 상인들 · 괜찮은 한인 민박들 · 타 국가와의 근접성 등 전반적인 여행 도시로서의 밸런스가 무척 뛰어난 편이다.

부다페스트, 파리, 프라하를 세계 3대 야경 도시로 꼽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물론 세 도시 모두 훌륭한 야경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개중에서는 부다페스트가 제일 낫다는 평이 제일 많다. 도나우 강을 기점으로 어부의 요새, 부다 왕궁, 겔레르트 언덕 등에서 멀리 바라보는 야경과 국회의사당 맞은 편, 유람선 이용 등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 등이 주요 야경 관광지이다.



▲ 국회의사당 야경과 어부의 요새 등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데, 두나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고 지나다 보면 몇 배 더 큰 황홀함을 안겨준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국회의사당과 부다 왕궁 등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는 라이브 음악과 와인
이 함께 했을 때 잊지 못 할 여행의 추억을 선사한다. 배의 종류와 옵션에 따
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세체니 다리부터 에르제베트 다리까지 이어진 선착장에
서 유람선을 탈 수 있다.

부다페스트스 부다 지구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는 Europa Rendezveny사를 방문하여
유람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Europa Rendezveny사는 1996년부터 유람선을 운영하는 회사로 대형선박과 중
형선박을 포함하여 약 12척의 선박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의 니
즈를 고려하여 참신한 이벤트를 끊임없이 구상하고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활
발한 SNS활동을 인해 젊은층들은 썬셋 테마등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벤
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단체버스와의 연계, 고급 식사프로그램, 음식투어 프로그
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료나 식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혹은 허가 절
차를 거치면 가능하며, 고유의 음주 문화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정부에서는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설치하여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선착장의 소유는 최대 3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선착장의 총량은 정
해져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출은 어려우며, 기존 사업장의 동의 혹은 임대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자.



▲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는 Europa Rendezveny 방문

유람선의 운영은 사업자 개인 혹은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정부에
서는 유람선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협
회로 구성된 사업자측과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있다. 해당 구역의
최대수심은 약10m 정도이며 평균수심은 5m이며 필요시 준설을 통해 운항로를

확보하고 있다. 다뉴브 강에는 많은 선박들이 운영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2019년 사고 이후 대형 국제 크루즈 선박의 경우 선박의 선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되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고도로 숙련된 선장 및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uropa Rendezveny사의 방문과 유람선 운항을 체험한 이후 다뉴브강에 정박하고 있는 수상호텔을 함께 방문하였다. 수상호텔은 선박을 개조하여 객실을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하여 호텔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호텔과는 차별화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으나 수상호텔이라는 희소성이 장점일 뿐 선박이라는 공간의 한계로 편의시설의 확보가 어려워 경쟁력을 갖춘 호텔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방문한 수상호텔은 4성급 호텔로 총 42개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요금은 1박을 기준으로 약 80유로 수준이다.



▲ 다뉴브 강의 수상호텔 전경과 내부

3.이탈리아 - 밀라노, 꼬모

가. 방문목적

밀라노 운하를 활용한 수상관광 및 꼬모 호수 선박 관리청 방문

나. 방문 일자: 2023. 4. 12(수). ~ 14.(금)

다. 방문 내용

밀라노는 이탈리아 반도의 북서부에 있는 북부 최대도시로, 롬바르디아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 강이 이 도시를 흐르고 있다. 시내 인구는 수도 로마 다음

으로 많으며, 국제, 다국적 도시로도 불리는데, 인구의 15%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마가 이탈리아의 행정적 수도라면,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수도라 할 정도로 이탈리아 최대의 경제 중심지이며, 런던, 파리, 마드리드에 이은 유럽 4대 경제 도시이자 토리노, 제노바와 함께 이탈리아 산업 트라이앵글로 묶인다.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와 유사하게 밀라노도 관광으로도 잘 알려진 도시다. 2008년에 관광객 191만 명이 방문했는데, 대개가 행사나 전시회에 참석하러 온 것이며, 근교 위성도시들에 중세부터 휴양지로 이름 높은 코모 호수나 마조레 호수와 알프스 산맥이 있으며, 코모호수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탈리아 밀라노를 생각하면 먼저 밀라노 대성당 즉 두오모나 몬테나폴레오네 거리를 떠올리게 된다. 아니면 스칼라 오페라 극장이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그린 ‘최후의 만찬’을 머리에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색적인 관광지가 바로 나비글리오 그란데 운하다. 밀라노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와는 달리 강이나 바다 주변에 건설된 도시는 아니다. 나비글리오 그란데는 12세기에 만든 인공 운하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 됐다. 밀라노에 운하를 처음 건설한 것은 군사적 목적에서였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바르바로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다. 운하를 만들 때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한다. 그의 아이디어 덕분에 운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었다.



▲ 밀라노 운하에서 수상체험활동 및 수상식당

밀라노 운하의 전체 길이는 원래 50km였다. 운하는 20세기 들어 대부분 콘크리트로 덮여 자동차길로 만들어버렸으나,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나비글리오 그란데 운하를 정비했다. 이를 계기로 운하 양쪽에는 카페, 식당, 상점이 들어섰으며 작은 유람선이 운하에 떠다니기도 한다. 21세기 들어 운하는 밀라노 시민에게 달콤한 생활의 활력소로 변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도 밀라노 시민들은 틈만 나면 이곳으로 달려갔다. 운하가 인기를 끌자 일부에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아래에 깔린 운하를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밀라노를 녹색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꼬모호수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과거 빙하가 녹아 생성된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Y자형 호수로 로마 시대부터 부유한 귀족들의 휴양지로 알려져, 호수 주변으로 귀족의 별장과 궁전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윈드서핑이나 요트 세일링 등의 레저를 즐기거나 ‘꼬모 호수 산책로’를 따라 가볍게 걸으며 주변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식사를 즐기기도 좋다.



▲ 꼬모 호수 관리부서 Gestione Navigazione Laggi 방문

우리 방문단은 꼬모 호수 관리부서인 Gestione Navigazione Laggi를 방문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Gestione Navigazione Laggi는 꼬모 호수에서 도선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직원은 약 24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30여척의 선박을 운영 중에 있는데 완행선과 쾌속선으로 분리하여 운행중에 있다. 직원은 운항 뿐 아니라, 사무직렬과 정비 분야까지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19 상황인 2022년에도 500만명의 방문객이 코모 호수를 찾았다고 하니 성공적인 관광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코모호수에서는

여 설명한 후 주차장의 확보와 관련하여 가평군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청평페리 노한상 대표는 선박 건조내용과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관별 실무자들로부터 보고 받은 대표자들은 몇 가지 당부 및 협력사항을 말씀하였는데 가평군 서태원군수는 이번 사업은 가평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평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남이섬 민경혁 대표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know-how가 있는 만큼 운영과 홍보에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I레저개발 이명관 대표는 ‘북한강 천년벚길’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선봉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5,6월에 있을 효정크루즈의 출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은 이번 사업이 북한강 수변 뿐만 아니라 많은 가평군민이 기대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민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쳐야 부정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북한강 천년벚길 관계자 간담회 실시

III 시사점

이번 공무국의 출장을 통해 선진지의 수상관광을 돌아보고 우리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강의 활용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북한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쉽지만, 북한강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 플레이스로 발전할 수 있다. 비록 북한강은 비엔나의 다뉴브강이나 부다페스트와는 많은 차이가 있

으며, 우리나라의 하천이 유럽과는 달라 도입할 수 있는 아이템은 차이가 있지만, 북한강 수변에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많이 존재한다. 가공되지 않은 보석 같은 관광자원들을 떠올리고 북한강을 수상관광의 메카로 만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강을 활용하여 수상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점으로는 우선 북한강 수변에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많다는 점이다. 연 방문객이 33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남이섬이 위치하고 있고, 재즈페스티벌과 남도 꽃 축제로 관광100선에 선정된 자라섬이 있으며,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으로 더욱 알려진 뿌띠프랑스와 이탈리아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레저의 메카인 청평호반 등 이미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있어 이러한 자원을 잘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하천으로서 북한강의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하천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된다는 점과 하상경사가 급하여 수류의 흐름이 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여유 수변구역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평군의 북한강 즉 청평호반은 청평댐의 영향으로 수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상류에 위치한 의암댐과 소양강댐의 방류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한 대비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관련규정 등에 따라 중첩규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청평댐을 기준으로 상류구간은 수질보전 특별대책2권역에 해당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부유식 시설물의 설치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청평댐 하류에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수상관광을 활성화시키기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평군의 비전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바로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온 군민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평군의 관광트렌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강이라는 고유명사를 브랜드화시켜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수상관광의 거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강의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중장기

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북한강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강 수변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강 천년벚길은 이제 서서히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나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통한 방향으로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상레저 메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안의 수상레저사업이 아닌 개발 활동자들의 기반 조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상레저종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수상레저종합센터는 개인 활동자들의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하고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한강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강 수상택시, 북한강 안전관리센터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상레저로 국한되는 여름 한철만이 아닌 사계절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수상관광정책을 추진해야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의 건설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